

동백동산과 ‘범씨 아이들’

김재영 소설가



세파에 시달리고 지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 제주다. 화산섬의 검은 대지와 독특한 생태계는 이국적인 정취를 드러내고, 바람이 빗어낸 돌담은 축적된 시간의 행렬인 양 길게 이어져 여행자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게 한다. 무엇보다 꽃자왈 습지는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크고 작은 용암덩어리와 나무, 덩굴 식물 등이 수풀같이 어수선했던 독특한 지대인데, ‘꽃’은 큰 숲, ‘자왈’은 작은 숲을 뜻한다.

지난 봄, 동백동산에 자주 들렀다. 제주도에서 네 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선홍꽃자왈에 속하는 그곳에는 수십 개의 습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습지가 ‘먼물깍’이다. 동글동글한 순채와 가는 물부추가 봄 햇살 아래 잎을 키우고, 작은 수중생물들이 수면 위에 어른거리는 풍경이 곱고 아련해서 주변에 앉아 그리운 이를 떠올리며 오래 머무르곤 했다. 동백동산은 봄이면 붉은 동백꽃의 아름다움에 홀리듯이 숲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봄이 아니더라도 종가시나무, 감탕나무, 빗죽이나무 따위

가 울창하고 관목과 덩굴 등 다양한 생물종이 어우러져 원시적 아름다움과 신비가 가득하다.

자유롭게 번식하며 자라난 나뭇잎은 윤기 나는 초록 빛을 발하고, 가지 사이로 스며든 햇빛은 숲의 안쪽 깊은 곳에 닿으며 형클어진 속살을 은근히 드러낸다. 온갖 새들은 저마다 절절하게 노래하고 보춘화와 사철란, 철철이 피어나는 야생화는 진한 향기를 뿜어낸다. 어느 정신의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숲에서의 명상적 걷기가 심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숲을 걷다보면 저절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숲의 한가운데에 다다르면, 누구하고든 내밀한 대화가 가능할 것처럼 여겨진다. 얼어붙은 시선은 온유해지고, 죽어버린 언어는 생기를 얻으며, 막힌 관계는 스르르 열릴 것 같다. 도시적 삶에 지친 이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 부드러운 흙 가슴으로 어린 생명 하나 키워내고 싶어지게 한다.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철학자 스피노자처럼.

고요한 폭풍의 철학자로 알려진 스피노자는 인간에게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이란 누구나 자기 삶을 온전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예측 불허의 상황에 빠져들곤 한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삶에 지치고 낙담해진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한다고 했으리라. 누구보다 신의 존재를 숭배한 스피노자는 ‘자연’이 곧 신이라고 믿었다. 자연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치유의 힘을 경험해 본 이는 쉽게 수긍할 대목이다. 또한 그는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 여겼다. 그렇기에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오늘날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게 아닐까.

아름다운 동백동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데는 한 선각자의 헌신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고 고백송 선생은 학교 부지로 사용하라며서 사유재산을 기증했다. 참혹한 암흑기에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며 학교 부지를 기증했다는 게 놀랍고 고마울 따름이다. 그것도 한 그루 사과나무가 아닌, 수십 만 그루 동백나무 숲이라니!

그곳에서, 정확하게는 그 근처 시골마을에서 ‘법씨 아이들’을 만났다. 모두 중학교 3학년이었다. 경기도 광명시의 법씨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는데 3학년 과정을 제주 분교에서 보낸다고 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인문학 서적으로 공부하며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교육을 받는다. 스스로 밥을 짓고, 청소와 빨래를 책임지며, 먹거리를 얻기 위해 농사도 짓는다. 법씨학교에 처음 들렀을 때, 열 명 남짓의 아이들이 풍물 연습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세월호 추모행사’에서 공연할 거라 했다. 아주 자유롭고 흥겨운 분위기였다. 빨갛게 달아오른 아이들 뺨

이 동백꽃보다 고왔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신화학자에게 ‘제주 신화’ 특강을 듣고 있었다.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사도, 듣는 아이들도 눈빛이 별처럼 빛났다.

무엇보다 나를 감동케 한 것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상실과 텃밭이었다. 아이들은 재래식에 가까운 친환경 생태 텃밭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나온 용변을 뒤곶의 두엄 더미에 가져가 퇴비로 만들었다. 잘 만들어진 퇴비는 다시 텃밭에 뿌려 채소와 곡식을 길렀다. 도에서 살던 아이들이었지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했다. 나는 속으로 넋었다. 농사꾼에게 새 희망이 되는 법씨같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의 법씨가 될 아이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와 에너지 낭비의 문제를 머리로만 고민하던 나는 절로 고개를 숙였다. 얼마 뒤, 지역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문학교실’에서 강의하면서 법씨 아이들과 다시 만났다. 새벽에 메밀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오전수업을 듣기 위해 책상에 앉은 아이들이라니! 참으로 기특했다.

그 뒤로 나는 제주에 좀 더 자주, 오래 머물며 지낸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예술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공동체 ‘바라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일을 위해서다. 소설 쓰기에 전념하지 못하는 번잡함과 수고를 감수해야 하지만, 아무렴 어쩐가.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는데, 생명의 동백동산에 갔다가 만난 법씨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되었는데…. 오늘따라 새삼 동백동산에 가고 싶다. 추운 계절이지만 나무들은 어느새 봄을 준비하고 있을 터이니. 🌸

※김재영 : 1966년 경기도 여주 출생. 성균관대 가정관리학과,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졸업(문학박사). 중앙대, 명지대 등 출강. 전태일문학상 입선,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 수상. 소설집 〈코끼리〉, 〈폭식〉 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단한 삶을 그린 단편 ‘코끼리’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

※본문의 녹색색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